



From: Monika Szewczyk  
Date: May 17, 2015 7:59:47 PM GMT+02:00

I have now spent some hours with the work of Nina Canell, particularly the sculptures involving fiber-optic cables, cut, tangled up or otherwise rendered functionless. And I realize that I have almost nothing to say. Perhaps the best art of any age inspires aphasia. Its history remains to be written. The word aphasia, which comes to us from Greek, combining a- (“without”) and phasis (φάσις, “speech”). It is now understood as a disorder of the brain. But perhaps there exists an altogether differently ordered brain. Is Nina Canell’s work the material remaining from or waiting for this mentality, this society? And does it exist in the past, in the future, or simply in another time zone?

보내는 사람: 모니카 슈젝  
날짜: 2015년 5월 17일 7:59:47 PM GMT+02:00

마침내 나는 지금 니나 카넬의 여러 작업 중 잘리고 꼬이거나 쓸모 없어진 케이블로 만든 조각들과 몇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나는 거의 아무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어느 시대나 최고의 예술은 실어증을 일으키는 것 같다. 그 역사는 여태 쓰여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실어증(aphasia)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기원했는데 a-(없이)와 phasis(φάσις, 말言)가 결합된 것이다. 지금은 이것이 뇌의 기능장애로 설명된다. 그렇지만, 어쩌면 총체적으로 다르게 돌아가는 뇌가 있는지도 모른다. 니나 카넬의 작업은 이런 정신 상태, 혹은 이런 사회에서 파생된 무엇인가? 아니면 그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러면 이 작업은 과거나 미래 중 어디에 존재하는가? 혹은 전혀 다른 어떤 시간대에 존재하는 것일까?